

검찰, 이준석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승객 구조·퇴선 지시 외면은 살인행위와 동일”

선원들은 1심과 같은 형량 요청...28일 선고 공판 주목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까.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일 결심(結審)공판을 끝으로 선고 공판만 남겨두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69)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

다”며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강모(43) 1등 항해사·김모(47) 2등 항해사, 박모(54) 기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뒤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됐던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뢰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들 촉구 잇따라

1주년 앞두고 탄원서 제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세월호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7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용화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경길 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장현권 광주기독교협의회 회장,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과 선원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활동가, 작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

가기록단’도 이날 법원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작가기록단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240일간의 희생자 가족의 육성을 기록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펴낸 바 있다.

세월호 피해자의 정신 치료를 맡아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와 달리 세월호 참사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명백히 존재한다”며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이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는 ‘진실마중 사람 띠 잇기’ 행사를 연 뒤 세월호 희생자를 감안한 ‘304배’를 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8일 세월호 1주기 추모기간(4월 8일~17일)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YMCA 무진관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국제행사 앞두고 노상 적치물 수거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7일 신안동 이면도로서 인근 상인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놓아 둔 타이어를 수거하고 있다. 북구청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전 문제 다투다 지인 살해

목포경찰, 50대 붙잡아 조사

목포경찰은 7일 금전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목포시 상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51)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과거 병

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A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를 범행 뒤 태연하게 “집에 방뒀더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전날부터 A씨와 함께 있다가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행적이 경찰에 발각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무안공항 비상착륙 美 전투기 엔진 고장인 듯

유독물질 외부 유출은 없어

7일 오후 3시35분께 미국 공군 전투기 2대가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상착륙 과정에서 인명피해 우려와 유독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등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F-16 전투기 2대는 이날 오후 2시35분께 훈련비행을 위해 전북 군산공항에서 이륙한 뒤 전투기 1대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 전투기 2대가 잇따라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전투기는 무사히 착륙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하지만, 착륙 과정에서 유독성 물질인 하이드라진(hydrazine)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미 공군 측은 현장 조사 결과, 하이드라진 외부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이드라진은 비상착륙시 엔진에 주입되는 액체 화학물질로 공기와 접촉될 경우 자체 발화·폭발 위험이 강하며 인체와 접촉할 경우 피부와 호흡기 등을 손상시켜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갑작스런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하면서 하이드라진을 사용하긴 했으나 외부 유출은 없으며 조중사도 건강한 상태”라며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비 작업과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총인시설 담합 대립산업 상대

18일까지 10억 손해청구 소송 내기로

“손해 60억 달하는데...” 지적도

광주시가 개칭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낙찰업체로 선정됐던 대립산업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광주시가 지난 2013년 4월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 사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 추진 입장을 밝힌 뒤 2년 만이다.

광주시는 900억원 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음찰액을 담합,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대립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 만료일인 18일까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광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은 10억원 규모로 검토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 비용의 경우 소송 진행

중 이뤄지는 감정 평가에 따라 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법률자문을 들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하지만 통상적 수준보다 나날 가격이 높게 결정되면서 입은 손해 금액(60억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인시설 입찰에 참여한 대립산업 등 4개 업체가 입찰 가격에 이상 공사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입찰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광주시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가 지난 2월 패소했지만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는 입찰 담합으로 광주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상액이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소송액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기사 보도 협박 돈 쟁긴 ‘유명’ 신문사 대표 경찰서행

“광고를 주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공공기관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쟁긴 ‘유명’ 신문사 대표가 경찰서행.

“~7일 합평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일간지 대표 김모(58)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합평군청 등 전남 지역 21개 관공서와 금융기관 관계자들

을 협박, 광고 협찬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13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쟁긴 혐의.

“~김씨는 일간지를 표방하면서도 지난해 단 6일만 신문을 발행하고서 광고비에 이어 구독료(130만원)까지 가로챘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는 “나는 비록 사무실도 없이 신문사를 운영해왔지만 떼떽하다”고 변명을 부인.

/합평=황운화기자 hwang@

신축 원룸 매매

관심을 건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대리식사당,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스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7억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2채 무화과 식재있음(토지310평) 매매가3억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올수리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원지구 모이밸7100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전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수완지구 사무실 임대 매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 월수익 150만

✓ 매매가 2억5천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대지 210평 (1층 6칸)
- 건물(2층2칸), 학원적합

※ 2중주택하면서 상가수익가능

매매가 3억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평가 6억6천, 최저가 3억6천
-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저가 2억1천5백
- 남구 노매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3억2천
-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북구 두암동 (3층상가겸 주택) (198㎡, 건물 512㎡)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3억9천
- 광신구 소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 서구 쌍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저가 3억7천
-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저가 2억 1천
-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저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북구 일곡동 (1층 패자점)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저가 28억
- 북구 배곡동 (1층 조림사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저가 11억
-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저가 3억9천
- 장성 삼계면 (2층건물) (토 1088㎡, 건물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9천1백
- 담양군 금성면 (3층편선건물) (토 3003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저가 9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역사점)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저가 88억
-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1억3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경매 기본교육 + 실전주주 교육

- 오전반 11시~12시 30분
- 오후반 2시 ~ 6시 사이
- 저녁반 7시 ~ 9시
- 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개찰·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경매 물건 추천

-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7천
- 담양군 금성면 (핀선)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저가 9억9천
- 북구 두암동 근린 주택 3층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9천

062-527-7600
010-7384-7800